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5년 7월 10일(목)
관련자료: 사진자료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개막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후원 계약 연장

- 7월 10일(목)~13일(일)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North Berwick) 소재 ‘르네상스 클럽’에서 개최
- 세계 정상급 선수 156명 출전 ... 우승자에게 상금 140만 달러 및 GV70 전동화 모델 수여
- 제네시스, 6번홀 퍼블릭 라운지 및 어린이 전용 응원 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타이틀 스폰서십 2030년까지 연장 ... “골프 산업의 미래 선도할 것”

DP 월드투어 롤렉스 시리즈(Rolux Series) 중 하나로 유럽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인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2025 Genesis Scottish Open)’이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North Berwick)에 있는 ‘르네상스 클럽(The Renaissance Club)’에서 개막한다.

지난 2022년부터 미국프로골프협회(이하 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현지 시간으로 7월 10일(목)부터 13일(일)까지 총 나흘간 열리며 PGA 투어와 DP 월드투어,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 코리안투어) 소속 선수 총 156명이 참가한다.

■ 총상금 900만 달러...지난해 우승자 비롯한 최정상급 선수들 대거 참가

이번 대회에는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인 로버트 매킨타이어(Robert MacIntyre, 세계랭킹 14위)를 비롯해 스코티 셰플러(Scottie Scheffler, 세계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Rory McIlroy, 세계랭킹 2위), 잰더



PRESS RELEASE

쇼플리(Xander Schauffele, 세계랭킹 3 위)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성재(세계랭킹 25 위), 안병훈(세계랭킹 47 위), 김주형(세계랭킹 58 위)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며, KPGA 코리안투어 소속 김홍택, 이정환, 조우영 선수도 제네시스 초청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총 상금은 900 만 달러로, 우승자에 게는 상금 140 만 달러와 함께 GV70 전동화 모델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6 번 홀에서 첫 번째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에게 GV60 가 부상으로 제공되며, 17 번 홀에서 첫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와 캐디에게는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 가 각각 부상으로 제공된다.

제네시스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제네시스 차량 113 대를 지원하고, 대회가 열리는 르네상스 클럽 곳곳에 ▲GV70 전동화 모델 ▲GV60 ▲G80 전동화 모델 ▲제네시스 엑스 그란 레이서 콘셉트 등 제네시스 차량 13 대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이번 대회에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6 번홀 인근에 ‘제네시스 퍼블릭 라운지’를 조성하고 ▲제네시스 골프 컬렉션 전시 ▲한국 전통 간식 체험 ▲골프 시뮬레이터(TGL) 연계 프로그램 등 참여형 이벤트 운영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 홍보에 나선다.

제네시스 퍼블릭 라운지 주변에는 ‘어린이 전용 응원 존(Kids Cheering Zone)’을 새롭게 도입해 어린이 팬과 선수들간 접점을 강화할 예정이다.



PRESS RELEASE

온라인 이벤트로는 6 번홀에서 첫 홀인원 발생 시, 사전 온라인 응모를 통해 홀인원에 성공한 선수를 정확히 예측한 관람객 1 팀(2 명)에게 올해 10 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 초청 패키지를 제공한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골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집중했다"라며 "8 만명의 관람객들을 위해서도 최고 수준의 골프 관람뿐 아니라 관람객 대상 홀인원 이벤트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타이틀 스폰서십 2030 년까지 연장

한편, 제네시스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타이틀 스폰서십을 2030 년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PGA 투어 최초의 공식 자동차 및 모빌리티 파트너가 된 제네시스는 이번 스폰서십 연장을 통해 유럽 및 전 세계 골프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은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은 단순한 골프 대회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최근 제네시스가 PGA 투어 최초의 공식 자동차 및 모빌리티 파트너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스코티시 오픈 후원 연장을 통해 골프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고 제네시스의 영향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사진 설명>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후원 계약 연장



PRESS RELEASE

DP 월드투어 롤렉스 시리즈(Rolex Series) 중 하나로 유럽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인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2025 Genesis Scottish Open)’이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North Berwick)에 있는 ‘르네상스 클럽(The Renaissance Club)’에서 개막한다.

사진1) (왼쪽부터) PGA 투어 최고 커머셜 책임자 릭 앤더슨(Rick Anderson),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DP 월드투어 최고경영자 가이 킨닝스(Guy Kinnings)

사진2) (왼쪽부터) PGA 투어 최고 커머셜 책임자 릭 앤더슨(Rick Anderson),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DP 월드투어 최고경영자 가이 킨닝스(Guy Kinnings)

사진3) (왼쪽부터) PGA 투어 최고 커머셜 책임자 릭 앤더슨(Rick Anderson), PGA 투어 안병훈(Ben An) 선수, 현대차 대표이사 호세 무뇨스 사장, PGA 투어 아담 스콧(Adam Scott) 선수,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DP 월드투어 로버트 매킨타이어(Robert MacIntyre) 선수, DP 월드투어 최고경영자 가이 킨닝스(Guy Kinnings)

사진4)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대회장 전경

사진5)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대회장 전경

사진6)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대회장 전경